

“경찰국 설치 반대합니다”



26일 오후 광주경찰청(왼쪽)과 전남경찰청 앞에 걸린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김생훈 기자

‘경찰국’ 내달 2일 출범

국무회의 통과... 인사업무 등 수행
장관 직속 조직, 16명 인원 구성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내달 2일 출범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내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 차관급인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신설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되며, 이 중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 12명(차관급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한다.

경찰국의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전체 인원 16명 중 4분의 3인 12명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으로 구성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들 일반 공무원들은 각각 총괄지원과장 1명, 총괄지원과 직원 1명, 자치경찰지원과 직원 2명으로 배정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총원한다.

경찰국 업무를 과별로 보면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앙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한다. 자치경찰과는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을 맡는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서울=강병원 기자

광주 대동고 답안지 유출...지역사회 ‘충격’

재학생 2명 “더 잘하고 싶었다”
교무실 침입 교사들 컴퓨터 해킹
재시험 여부 논의...경찰 수사 확대

광주 대동고에서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6면

특히 재학생 2명이 특정 과목을 노리고 늦은 밤 교무실에 침입해 약성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이례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A군 등 대동고 2학년 재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최근 기말고사를 앞둔 출제 시기 교무실에 침입, 교사들 컴퓨터에 약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마다 갈무리한 화면 내용을 며칠 뒤 회수하는 수법으로 시험 문제와 답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사들이 퇴근한 심야 시간대 잠금장치가 해제된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과학, 한국사, 수학 II, 생명과학 등 4과목의 출제 자료를 컴퓨터에서 회수할 때 같은 방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A군 등이 담당 교사 자리를 미리 파악하는 등 해당 과목을 미리 특정해 교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A군 등은 기말고사 문제와 답안을 빼내기 위해 야간에 다시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침입 일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A군 등이 출제 단계의 미완

성 문제뿐만 아니라 답안지 작성 당시의 컴퓨터 작업 화면 갈무리 자료도 함께 빼돌린 것으로 확인했다.

범행에 이용한 약성 프로그램은 입건된 학생 가운데 1명이 제작했다.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기능을 더해 맞춤형으로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군 등은 경찰에서 “더 잘하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육청도 답안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에 재시험 여부를 빠른 시일에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답안지 유출 의혹이 경찰의 수사로 밝혀짐에 따라 재시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답안지를 빼낸 학생의 성적이 전체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 재시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건으로 기말시험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시험 여부를 결정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장과 교감, 교과군 대표 선생님, 외부 인사(위촉) 등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평가와 관련해 출제부터 인쇄, 시행, 채점 등 단계별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후속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에서는 2018년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가 통째로 유출돼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환준·김혜린 기자

광주·전남 코로나 신규확진 5천명대 초읽기

병원·군부대 등 집단감염

광주·전남에서 3개월여 만에 각각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광주 2,314명, 전남 2,547명 등 총 4,86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3일 4,191명을 기록한 이후 83일 만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4월27일 2,07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89일 만에 2,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전남과 같이

573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보다는 가족이나 지인간 등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에서는 2,547명이 시규 감염돼 지난 5월 9일 2,303명 이후 77일 만에 2,000명대 확진자

가 나왔다. 사망자는 1명이 발생해 누적 502명으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9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여수 470명, 순천 407명, 목포 338명, 광양 261명, 나주 192명 등이다.

전남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19곳에서 57명이 감염됐다. 특히 장성의 군부대 관련 29명, 영광의 한 병원 관련 15명 등 집단감염과 함께 가족·지인간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임채민 기자

INSIDE NEWS

- ▶3면 광주 민간공원아파트 분양가 뛰나
- ▶7면 ‘버스베이’ 되레 승객안전 위험
- ▶11면 기획 / 김산 무안군수



글로벌 일류기업
건해건설(주)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무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준공**
강원 동해시, 광주 용봉동, 서울 공릉동 등 아파트 644세대
- 진행**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피스텔 240호
영광 군서면 마음리 연립주택 212세대
- 예정**
대전시 동구 낭월동 희담재 아파트 258세대

대표이사 **이 현 각**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6
TEL. 062) 574-8501

www.gunhae.co.kr

기쁨을 주는 아파트

희담재
HEDAMJAE